

설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103:1-5)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 103:1~5)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약한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집니다. 이와 같이, 기도가 없는 인생도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 받는 체험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장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든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붙드시고 온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찬양을 드려라

첫째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찬양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가 적의 침략을 받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밋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두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게 하셔서,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처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그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시작할 때 찬양을 드리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줄까?’하는 의심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찬양을 통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2. 죄를 회개하라

둘째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냥 때esso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날 대조동에 개척교회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 예수님 믿으십니까?”하고 묻자, 그 할머니가 “나야 이제 다 늙었는데 예수 믿어서 무엇합니까? 우리 아들 병이나 낫

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고 기도 응답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신종과 불신앙이라는 죄의 담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를 통해 죄의 담을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매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발은 짐에서, 회사에서, 끊임없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매일 같이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사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용서가 넘쳐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며, 마귀의 잠소를 받지 않게 됩니

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필요를 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소원을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 7:7-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성령을 받기 원한다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그저 “하나님, 주시고 싶거든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충청도 어느 시골에서 복음을 증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성회 때 땅을 뽕뽕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난 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성도들이 좀처럼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 강조하자, 그때 서야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옆에 있는 젊은 부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애, 며느리 얘기가, 나가거라, 나가.” 그런데 그 부인이 안 나간다고 거절을 하자,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나가 보래두. 밀쳐야 본전 아니냐” 순간 예배당은 웃음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 밀쳐야 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밀쳐야 본전’이라는 식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온전히 믿

고 뜨겁게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겔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을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어찌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불퇴전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동경교회에 키시모토 준코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분은 여섯 번의 암 제거 수술을 받고도 불치판정을 받았습니 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써 치료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성도는 2010년에 직장암 4기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2년 후 암이 재발하여 난소로 암세포가 생기고, 이후에는 간과 폐로 전이 되고, 총 6번의 수술을 받았습니 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임파선까지 전이된 암 때문에 숨만 쉬어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결국 2014년 암세포가 폐와 간과 임파선으로 전이되어 이제의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 다.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국형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산리 기도원을 찾아가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죽더라도 기도하면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안수기도를 받고 난 후에 택시를 타고 동생 집으로 가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숨만 쉬어도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암이 사라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한국에 가서 금식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나왔다”고 간증을 했더니,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의술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이런 역사를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

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한 자식에게 살림을 내 준 다음에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내 능력이 되는 한 도 내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조조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음속에 평강과 확신이 다가왔으면, 이제 구함의 기도는 그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4. 감사하라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입술의 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하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확인 도장을 마음에 찍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에게 기도할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빈자리를 남겨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년이든 2년이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등 떠놓고 배부르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 괴로움을 당해야 밤이고 낮이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원하셔서 문제를 남겨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믿음으로도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교

여러분, 기도는 마귀의 진로를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

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사람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경험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

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필요를 온전히 구체적으로 구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

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고전3:1-9)

군대의 특별한 생리 중의 하나가 ‘직속상관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명령과 복종 관계가 철칙으로 지켜져야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직속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것부터 철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것처럼 직속상관과 직속부하들끼리만 너무 잘 통해서,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까지 무시하거나 거역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쿠데타라는 것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직속부하들이 군부 고위층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면, 마치 자기가 그들을 제일 잘 이해해 주는 좋은 상관인 채 하면서 평소에 비위를 맞추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하들을 국가의 총복이 아니라 자신의 사병(私兵)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하들은 그 직속상관의 명령만 필요치 않지 대통령 이든지 가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총구를 겨누게 되고, 그 상관은 나라를 통째로 삼킨 후 직속부하들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선임과 후임이, 장교와 부사관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면서 상하관계를 긴밀하게 가지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일 높은 사람은 따돌려 놓고 그 밑에서 저희들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런 군대란 국가안보라는 본래의 책임을 저버리게 될 뿐 아니라 아예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밭’으로 본문에서 비유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 수 있습니다.

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완전히 저 뒤로 제쳐 놓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들이 저희들끼리만 서로 짝짜꿍을 맞추면서 교회를 운영하려는 경우입니다.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물론 그런 밭이 농사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교회가 그런 부실한 밭, 그러럼 사람들끼리 해먹는 밭이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구령 사업이 제대로 일구어지고 열매가 자라는 기쁨진 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교역자와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밭’인 교회를 어떤 자세로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 교인들은 교역자를 주인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청지기’로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쫓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이겨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신령한 자”란 바로 앞의 2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 즉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계속 잘 성화되고 있는 신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숙한 신자를 “대함과 같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 즉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습관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여전히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란 이어서 바울이 설명하듯이 “젖” 즉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만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누구나 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는 이 ‘어린 아이’의 단계를 일단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장 발육이 멈추어 버린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데, 바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설립한 후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는 벌써 5년 정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밥”을 “감당하지 못하는”, 즉 더 높고 깊은 단계의 신앙 교육을 받을 수도 줄 수도 없는 갓난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두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장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사회에서는 젖을 빨고 몇 년이 지나도록 몸무게도 지능도 조금도 자라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겠지만, 신앙 세계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이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살았으면 어느 정도는 좀 자란 것이 표가 나와 할 터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발육속도가 완전 ‘제로’인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는 등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받았다면 분명히 나타나야 할 성장의 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알 수 없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훌륭한 사도들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대로 행동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바깥 사회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특하면 쉽게 서로 틀어지고 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편당을 짓고 패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그러럼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면서 각기 내세운 슬로건들이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혹은 1장에 나오듯이 “나는 게바(베드로)에게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일 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여 세운 교회였고, 나중에 아볼로 역시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특정 목회자에 대한 편애심이 극단적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만 사는 신자다.’라든지 ‘나는 아볼로 사도를 흠모하고 존경하는 신자다.’라는 말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다.’라는 신앙고백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어느 특정 목회자에 그들 자신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이 계속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구심점이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즉 그들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그들이 편애하던, 그리고 소위 존경한다고 추켜세우던 ‘한 명의 교역자’라는 테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실로 ‘우물 안의 개구리’ 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도나 교사 한 사람을 두고 좋아서 못살겠다는 식으로 떠벌리는 것을 마치 자신의 신앙고백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즉 ‘너희들이 내 눈에는 마치 아직까지 여전히 육에만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장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단 종교일수록 사람이 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지극히 높이고 극찬하기 마련입니다.

중이 뭔가를 좀 깨달았다고 점잖게 품을 잡으면 그것을 두고 ‘독도하신 스님’이니 하고 높이면서 그 도통한 것을 좀 얻어먹겠다고 몰려 듭니다.

무슨 수녀가 평생 빈자와 병자를 도우는 일반 하고 살았다 하면 그런 사람을 ‘성녀’라고 추앙하는 그 자체가 곧 자신의 종교 행위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수녀를 그러럼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스럽게 받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감탄할 줄 모르는 것은 그야말로 오로지 ‘육의 사람’에 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록교 신앙이란 것이 어떤 한 개인의

삶을 보면서 ‘사람이 저만큼 착하게 살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는 데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선했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스스로 ‘인(人)의 장벽’을 치는 일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나 같은 범인으로서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찬사를 던지게 되면, 그 순간 그 개인의 신앙이란 것은 바로 거기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또한 그런 찬탄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신성모독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직속상관만 하늘처럼 모시고 그 상관 위에 있는 최고 사령관을 모르는 병사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나아가는 길에 교역자를 그 사이의 장벽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떤 특정 목회자를 존경하고 받드는 선에서 정지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런 ‘중보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농부 같은 목사도 이 지상교회에 있지만, 교인 쪽에서 스스로 목사를 그런 ‘인(人)의 장벽’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인이 목사를 존경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해야 마땅합니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말씀을 그 목사의 입에 담아 주신, 스스로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전도사의 인품이나 삶이 존경스러우면, 본질적으로 자기와 똑같은 죄인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영광을 다 돌리면서, 자신도 그러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닮아가는 성화생활에 더욱 매진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교인은 주의 사자들이 결코 ‘밭의 주

인’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령 사업의 밭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신령한 농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밭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을 이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청지기로서 존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교역자는 교인들의 인기를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5절 이하 8절에 “5그러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노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결코 어떤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찬탄이나 영광을 돌릴 대상도 될 수 없는 존재라면, 과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은... 사역자들이니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 “사역자”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그냥 ‘종’ 혹은 ‘일꾼’이란 뜻인데, 원래는 주인의 식사 테이블 옆에서 시종들던 ‘웨이터’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받들어 주고 일부 지나친 사람들은 그러럼 자칭 ‘바울파’라고 극성을 부리기까지 했지만, 정작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그저 ‘종,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no more than servants)고 했습니다.

즉 바울로서는 단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곧 자기라는 존재의 정의요 기능이었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종으로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도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섬기던 사역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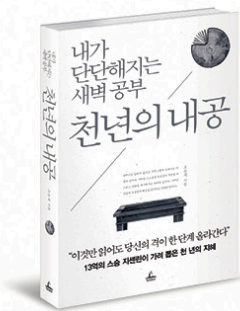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공부의 ‘끝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용재 지음 | 값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조용재 지음 | 값 15,800원



이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자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사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무려 3차에 걸쳐 온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전도활동을 할 때 무슨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선행을 쌓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훌륭한 교사로 명성을 떨쳤던 아볼로가 대중을 선도하여 무슨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가 로마제국의 압제에 대하여 의분을 발휘하면서 자기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무슨 정치 활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독교 사회 운동을 한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만 강조하고, 바로 그 다음의 말씀 ‘복음 전도’는 다른 말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반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 약자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영혼과 육신 전체가 천당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도 그제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심는” 일에만 주력

했습니다.

즉 그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 결과 그 복음을 영접하는 ‘좋은 땅’과 같은 심령 속에 ‘신앙의 뿌리’가 일단 내리게 만드는 사역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볼로가 했던 주된 사역은 “물을 주는” 것 즉 것처럼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인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원래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교사였기 때문에, 일단 신자가 된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더 자라나게 하는 사역에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처럼 ‘심고 물을 주는’ 과정들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다하면 자기네들의 할 일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 씨가 제대로 자라든지 못 자라든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자기네들의 뜻이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신자의 신앙성장 과정은 출발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중생 받은 심령이 경건생활을 통해 더욱 성화되어 가는 것은 본인 자신의 노력 때문도 아니요 교역자의 능력 때문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전능하신 힘에 100퍼센트 달려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도하는 사역자나 양육하는 사역자나 직무는 좀 달라도 똑같은 하나의 목적만을 공유하고 있는 한 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역에 대한 상급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시는 대로 받게 될 뿐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좋은 ‘하는 일’도 그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듯이, 그 ‘받는 상’도 그제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곧 ‘동역자’ 즉 같은 주인 밑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 ‘똑같은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일꾼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전파 주인을 제쳐놓고 스스로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본래의 사명 대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불만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일을 두고 목사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는 인기를 끌고 인정받는 목회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결코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나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농부에게 시킨 일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중자를 제멋대로 뿌리는 악한 농부와 꼭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 안의 적지 않은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를 통해 교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칭찬을 받는 ‘인기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 그런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본래의 사역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그제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좋아

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칙만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지상교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밭’이 되지 못하고, 그 밭에 있는 청지기, 즉 ‘집 관리’를 맡은 집사가 제멋대로 자기 사욕을 채우는 ‘강도의 굴혈’로 바뀌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그 밭은 집안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본래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교회가 마치 제집인 양 제멋대로 친구를 부르고 파티를 열고 저희들끼리 함께 흥청망청 마셔대는 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속부하들로 하여금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철저히 훈련시키는 대신 그제 자기만 좋아하도록 만드는 목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처럼 그제 알뜰한 인기를 끌어 모아 자기 생계나 유지하려는 목사들이야말로 오히려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샅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신앙생활이 잘 자라는 ‘하나님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사부터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심는 사역’이든지 ‘물 주는 사역’이든지 각각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 받은 달란트와 사명에만 집중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써 이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교인의 심기를 편하게 해 주려 하는 대신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도록 간절히 권면하고 엄히 훈계하는 교역자들을 정말 ‘배나 존경할 자’로 모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9절에 기록하기를 “9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라는 말이 각 구절에서 세 번 다 제일 앞에 나옵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우리는,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밭’에서 작물이 경작되는 과정, 즉 각 교인의 신앙 성장의 전 과정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의 모든 일을 역시 ‘하나님의 동역자’ 된 자들이 오직 그 주인께서 내리시는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밭’이 되지 않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씨를 뿌리고 제집인 양 멋대로 씨며 교인들과 같이 놀기만 하는 곳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집에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평생 주일마다 그제 목사의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미숙아 신자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를 제쳐 놓고 직속상관과 직속 부하들끼리만 해 먹는 교회는 바로 그처럼 ‘경작이 안 되는 밭’, ‘난장판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고 그제 자기

만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높임 받는 재미에 사는 목사들, 그제 자기의 육신적 불만만 잘 들어주고 도와주겠다는 목사를 하늘처럼 받들면서 진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인들이, 바로 그처럼 이 지상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교인과 목사가 친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그것이 교회생활의 최고 정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교인을 아끼고 교인이 목사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사랑 관계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법대로만 경작해야 합니다.

교인은 목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접촉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 어찌 하든지 본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교인, 자신의 팬(fan)을 키우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를 만들고 키우는 목사 - 이런 교인과 목사이말로 실로 완벽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각하고 각자에게 맡기신 본연의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됨으로써, 우리 경향교회가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더 성숙한 신자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숭실대, 숭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시다니요?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세례를 받으라고 요한이 외쳤는데, 원죄까지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마3:15) 머리까지 물속에 넣었다 올라오십니다.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셨습니다. 믿음의 햇살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희망의 햇살을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사랑의 햇살 한줄기 비추게 하옵소서. 저의 몸에 구원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저의 몸과 같은 예수님의 몸.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몸에 친히 자리해 주옵소

서. 하나님이 계시 저의 삶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 자신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양 물속으로 들어가시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귀중한 신앙을 길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 신앙한 중심에 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서로 아무런지고 쓰다듬어 부활의 새로운 빛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성리 놀라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연요한 목사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의 운명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세인 허요셉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월: 월간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이겨내다. 나아가다.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광고심의필 : 2018-1465-000502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